연예뉴스 스테이션

씨엔블루 동료사인 CD 폐기?…소속사 "오해" 해명

씨엔블루가 버렸다는 논란에 휩싸인 한 가수의 사인CD. 사진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씨엔블루가 동료 가수들로부터 받은 사인CD를 버렸다는 논란에 휘말려 비난을 받자, 소속사가 적극 해명에 나섰다. 21일 포털 사이트 연예 관련 게시판에 한 누리꾼이 '씨엔블루 동료가수 사인CD 마구 버리는'이라는 제목으로 사진과 글을 올렸다. 이 글이 온라인에서 논란이 되자, 소속사측은 "멤버들이 버린 것이 아니라 사생팬들이 그런 걸로 추측된다"고 해명했다.

개그맨 송준근, 항공사 여승무원과 9월10일 결혼

개그맨 송준근(32·사진))이 9월10일 오후 1시 서울 청담동 프리마 호텔에서 3년 간 교제한 승무원 여자친구 윤미영씨와 결혼한다. 두 사람은 5월 양가 상견례를 마쳤다. 예비신부 윤미영씨는 4살 연하의 승무원으로 개그맨 허경환의 소개로 만났다. 송준근은 KBS 2TV '개그콘서트'의 '생활의 발견' 코너에 출연중이다.

이시영, 복서 故 최요삼 다큐 내레이션…26일 방송

2011 여자신인 아마추어 복싱대회에서 우승한 배우 이시영이 세상을 떠난 프로복서 최요삼의 이야기를 그린 'SBS 스페셜-최요삼, 죽을 힘을 다한다는 것'의 내레이션을 맡는다. 26일 밤 11시 방송되는 이 프로그램은 2007년 12월 25일 세계 챔피언 방어전에서 쓰러진 후 35세의 짧은 생을 마감한 최요삼 선수의 이야기를 담았다. 프로그램은 고인이 남긴 일기장을 바탕으로 고인의 삶을 재연한다. 현재 부용고에 재학 중인 아마추어 복싱 선수이자 고인의 조카인 김태윤이 삼촌의 대역을 맡았다. 고인 추모곡 '챔피언'과 뮤직비디오를 만들어 화제를 모은 그룹 리쌍의 멤버 개리가 음악감독을 맡았다.

엄지원, 영국 BBC 다큐 출연 '한류' 소개

연기자 엄지원이 영국 공영방송 BBC의 국제방송 채널 BBC월드 다큐멘터리와 인터뷰를 했다. 엄지원은 BBC월드가 제작하는 '더 서드 아이'(제3의 눈)에 출연해 한국의 한류를 소개한다. 엄지원은 '더 서드 아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영화의 인기 요인으로 서정성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꼽았다. '더 서드 아이'는 세계에서 두각을 보이는 나라를 조명하는 시리즈다.

전아민, 내달 14일 입대…공익근무요원 복무

드라마 '드림하이'에 출연한 연기자 전아민(사진)이 7월14일 입대한다. 전아민은 5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마친 후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할 예정이다. 전아민은 '드림하이'에서 2PM 택연의 친구 역으로 등장한 후 각종 영화와 드라마의 러브콜을 받았다. 전아민은 1996년 SBS '임꺽정'에서 주인공 임꺽정(정흥채)의 아들 역으로 데뷔했다.

엄태웅·주원, 영화 공동주연 이어 펜션광고도 함께

연기자 엄태웅과 주원이 7월 말 강원도 한탄강에 문을 여는 호텔형 펜션 '모닝캄 빌리지 인 한탄강'의 광고모델을 맡았다. 이 곳은 엄태웅, 주원을 비롯해 엄정화, 김윤석 등이 소속된 심엔터테인먼트가 만든 펜션으로 커플 고객을 타깃으로 제작된 맞춤형 숙박시설이다. 엄태웅과 주원이 광고모델로 나선 이유는 이들이 영화 '특별수사본부'를 함께 촬영 중인 인연도 작용했다. 의문의 살인사건을 파헤치는 액션 수사극인 이 영화에서 엄태웅은 강력계 형사로, 주원은 탁월한 분석능력을 지닌 범죄심리학 박사 역을 맡고 촬영을 진행 중이다.

김세황, 비발디 사계 연주 음반 발표

기타리스트 김세황이 비발디 바이올린 협주곡 '사계'를 전자기타로 연주한 동명의 음반을 23일 출시했다. 역동적인 기타 연주로 록 마니아들에게 큰 지지를 얻은 김세황은 평소 클래식에 큰 관심을 갖고 '사계'의 전 악장을 전자기타로 연주했다. 김세황은 SBS '김연아의 키스앤크라이'로고송 '얼음꽃'의 기타 연주를 했다.

공연 랭킹

1위 공연 정보보기

6월 17일~6월 23일 자료:인터파크

순위	공연명	주연
1	뮤지컬 모차르트!	임태경·박은태
2	뮤지컬 〈삼총사〉	신성우·유준상
3	가족뮤지컬 "슈퍼영웅 뽀로로"	-
4	뮤지컬 〈잭더리퍼〉	신성우·유준상
5	뮤지컬 지킬앤하이드	조승우·홍광호
6	연극 〈산불〉	강부자·조민기
7	뉴보잉보잉 1탄	설주미·황유진
8	뮤지컬 아가씨와 건달들	김영주·옥주현
9	뮤지컬 투란도트	박소연·나비
10	뮤지컬 헤드윅	김동완·최재웅

새 음반 '핸즈 업'을 통해 무겁고 어두운 분위기를 벗고 밝고 활기차게 돌아온 2PM. 사진제공 | JYP엔터테인먼트

"무대에서 놀고 싶어서 박진영 형한테 무조건 신나는 곡으로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짐승돌'이 돌아왔다. '아일 비 백(I'll be back)'이후 8개월 만에 2집 '핸즈 업(Hands up)'으로 컴백한 6인조 그룹 2PM.

근육질 몸매와 짙은 눈 화장 등으로 강렬한 남성미를 과시했던 이들이 무겁고 어두운 이미지를 모두 걷어내고 한결 가볍고 밝은 모습이 되어 팬들 곁으로 왔다.

정작 본인들은 "가장 2PM스러운 모습"이라고 했다. 프로듀서이자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의 수장인 박진영에게 자신들의 이미지를 잘 표현할 수 있는 곡을 준비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래서 나온 노래가 타이틀곡 '핸즈 업'이다.

이전까지 부른 노래가 어둡고 무거웠다면 '핸즈 업'은 가볍게 클럽에 들러 음악을 즐기며 함께 놀 수 있는 분위기가 특징이다.

"진영이형한테 무조건 신나는 곡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진영이형도 우리의 의견에 적극 동참했고요. 무게 잡으면서 카리스마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느끼면서 팬들과 놀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2PM스러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고민했죠. 그 결과가 나온 것 같아 아주 만족합니다."(우영)

자신감이 넘쳤다. 그동안 볼 수 없었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에 대한 자신감이다. 그리고 멤버 각자의 의견이 많이 반영돼 더할 나위 없이 만족한 모습이었다.

"1집 하트비트(Heartbeat)때부터 우리 의견을 들어 줬지만 이번 앨범이 가장 많이 들어갔고, 준호나 준수의 자작곡을 포함해 개개인의 색깔이 많이 들어간 앨범이라 해도 괜찮을 듯해요."(찬성)

준호·준수 자작곡 등 여섯명 개성 골고루 담아
클럽음악에 미쳐 몸을 맡기듯
카리스마 벗고 팬들과 신나게 핸즈 업!
힘든 안무는 굿바이…손만 올려 가볍게 흔들어
에너자이저 2PM과 함께…손, 머리위로! GO!

●데뷔 3년차 아이돌, 변화 없이는 발전도 없다는 고민

한층 밝아진 노래에 맞춰 춤도 가벼워졌다. 강렬한 퍼포먼스가 특색인 이들의 안무는 그동안 팬들이 쉽게 따라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엔 손만 들어 올려 가볍게 흔들면 된다.

"모두가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춤이에요. 이번에는 기존의 어려웠던 안무를 보다 쉽게 가자고 했죠. 한번 보고 나도 할 수 있겠다는 말을 들을 수 있겠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게 키포인트에요."(닉쿤)

이들의 변화는 데뷔 3년차 아이돌 그룹으로의 고민이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다.

"벌써 3년이 됐어요. 주위에서 성숙해졌다고 봐주니까 좋은 것도 있는데 다른 면에서 보면 신선함이 없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고민이 많아요. 데뷔 때 초심을 잊지 않고 그때의 모습에 업그레이드해서 나오면 또 다른 신선함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준호)

"이번 앨범이 2PM의 새로운 시작이기도 합니다. 6인체제로 바뀌면서 업 앤 다운하는 기복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팀워크를 다질 수 있었던 계기도 됐고요. 6인체제가 되면서 처음으로 하는 밝은 노래이기 때문에 의미가 깊어요."(택연)

이들이 인터뷰 내내 강조한 '2PM스럽다'는 것을 한마디로 "에너지"라고 표현했다. 멤버들끼리 있으면 장난꾸러기 같은 매력도 있고, 평소 동네 옆집 형이나 동생 같은 친근한 모습이지만 무대에서는 또 다른 매력을 '에너지'로 표출하고 싶다는 것이다.

"퍼포먼스 그룹으로 데뷔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많이 보여드리려고 했어요. 노래를 부르고 퍼포먼스를 하면서 어떤 사람에게 힘이 되거나 기분 전환 및 감정변화를 준다는 게 우리의 목표고 활동하는 이유에요. 우리를 봤을 때 '2PM이 이렇게 잘 노는구나' 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준수)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트위터@mangoostar

편집 | 양혜진 기자 yhj@donga.com 트위터@e_joyful

스타, 그때의 오늘

1999년 임권택 감독 '스크린쿼터 사수' 삭발

1999년 오늘, 따가운 햇볕이 쏟아지는 아스팔트 위. 임권택(사진) 감독이 허망한 눈빛으로 허공을 응시할 때, 그의 머리카락은 바리캉에 쓸려나갔다.

이내 삭발이 됐고 이를 지켜보는 안성기, 박중훈, 한석규, 심은하, 전도연, 고소영, 이미연 등 톱스타들의 눈에 이슬이 맺혔다. 임 감독의 약력을 소개하던 명계남의 목소리는 흐느꼈다.

이날 임권택 감독 등 영화 관계자들은 스크린쿼터 사수를 외치며 삭발했다. 스크린쿼터 사수를 위해 모두 300여명의 배우와 감독, 제작자 등 영화 관계자들이 삭발을 결행했다. 이미 그 해 최고 흥행작 '쉬리'의 강제규 감독을 비롯해 박광수, 장선우 감독 등도 잇따라 머리카락을 깎았다.

이들은 당시 한미투자협정 협상에 나선 정부가 한국영화 의무 상영일수를 규정한 스크린쿼터를 줄이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결사항전'에 나섰다. 1967년 처음 시행된 스크린쿼터제는 할리우드 등 물량을 앞세운 외화의 공세 앞에서 한국영화 산업을 보호하려는 제도. 당시 최대 연간 146일, 최소 106일은 극장이 한국영화를 상영하도록 한 제도는 한국영화의 최후 보루였다.

하지만 정부는 미국의 압력에 밀려 스크린쿼터를 줄이려 했고 영화계는 크게 반발했다. 1998년 12월 1일에는 임권택, 정지영, 강우석 등 감독들, 안성기, 박중훈, 강수연, 심혜진, 최진실 등 배우들이 영화 제작을 전면 중단하고 자신들의 영정 사진을 들고 명동성당까지 장의 행렬을 이루기도 했다.

결국 2006년 7월 스크린쿼터는 73일로 줄었고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는 한국영화 점유율이 낮아져도 이를 늘릴 수 없도록 한 '현행 유보'를 채택했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트위터 @tadada11